

가속화되는 일본 메가뱅크의 인도진출

정윤영 수석연구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 대한 일본 메가뱅크의 진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 메가뱅크들은 인도 진출 자국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인도 소비자금융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인수 방식으로 인도 내 입지 강화와 수익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국내 은행도 인도시장 진출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업 확장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日 메가뱅크,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금융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시장에 진출 박차¹⁾

- 인도는 타 지역 대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 모바일 금융시장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어 글로벌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5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5%로 전세계 (3.2%) 및 신흥개도국(4.2%)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24.10월 기준)
 - '23년 기준 인도의 모바일폰 보급률은 79%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sataista)
- 글로벌 은행들의 인도 내 금융서비스 제공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메가뱅크들도 비즈니스 다변화 차원에서 인도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
 - 인도 내 금융니즈가 큰 소매금융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움직임

■ 日 메가뱅크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에는 금융그룹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현지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전략적 투자 및 인수를 통한 소비자금융 진출을 모색

- (MUFG) 인도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DMI Finance²⁾에 투자확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인도시장 내 입지 확대 및 사업 확장을 도모
 - MUFG는 디지털 기술에 강점이 있는 비은행 기업인 DMI Finance에 338억엔('23년)을 투자한데 이어 490억엔을 추가 출자('24.8월)하며 플랫폼 금융 사업을 강화
- (SMFG) 인도 내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Fullerton India Credit의 지분을 모두 인수('24.3월)하면서 자회사인 SMFG India Credit을 출범시켰으며 리테일 시장으로도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

[1] "Japanese mega-banks grow in India", IFR, 2024.11


[2] DMI Finance는 누적 1,520만 명의 손님을 자랑하는 인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업체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POS 대출 등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수행

- SMFG는 '21년 12월 Fullerton India Credit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지난 2년간 도시 및 준농촌 지역에 300여개의 지점을 추가 설립하며 인도 내 사업을 확대
- (Mizuho)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도 재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장 내 입지 강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 인도의 신용대출 전문회사인 Kisetsu Saison Finance 지분을 인수(15%, \$1.45억, '24.2월)하였으며, 인도의 기업 임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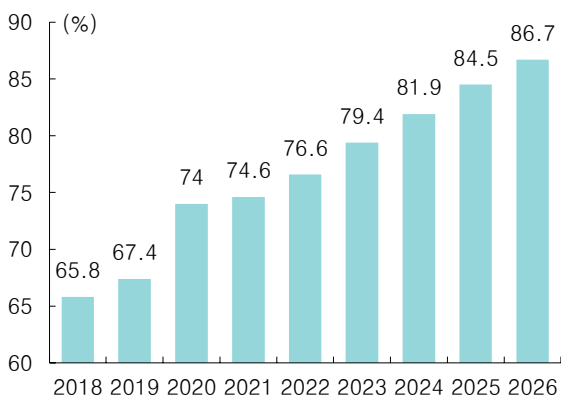
■ 또한 인도시장 내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증진을 실현

- (MUFG) '24년 3월 기준 인도시장 대출규모는 1.4조 엔으로 인도네시아(1.1조 엔), 필리핀(0.3조 엔) 등 타 동남아 진출 국가 대비 대출자산 규모가 큰 편
 - MUFG ASEAN 포트폴리오 내 인도시장 대출규모 순위: 6위('20년) → 3위('23년)
- (SMFG) 3,782억 엔('20년) 수준이었던 대출규모를 8,770억 엔('23년)까지 확대하며 인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수익 또한 증가 추이

■ 국내 은행들도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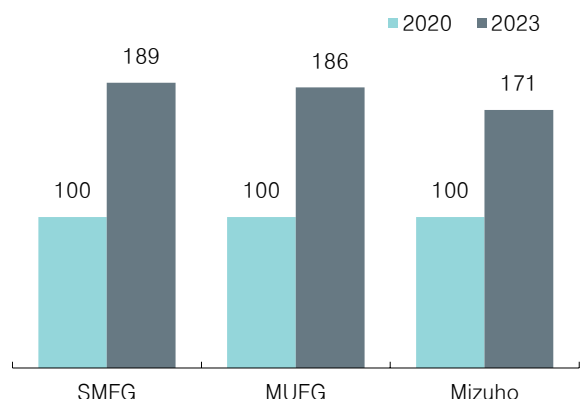
- 최근 들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인도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 지점을 증설하는 등 인도시장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중
- 그러나 향후 인도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시장 공략 방안을 고심할 필요 

■ 인도 모바일폰 보급률 추이



주 : 2023~2026년은 추정치
자료 : Statista

■ 日 메가뱅크들의 인도시장 수익 추이



주 : 2020년 회계연도 실적을 100으로 한 상대지수
자료 : 각사 홈페이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